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안전상임위원회 : 고양시 청소년이 안전한 거리
-김태현 의원

본 의원은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청소년이 안전한 거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등교→하교→학원→집이라는 일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을까요? 학원 시간에 쫓겨서 무단횡단 하는 것이 일상인 등하굣길, 학원을 다녀오는 길에 마주치게 되는 꺼진 가로등, 으슥한 주택가, 주점이나 유흥업소가 근접한 곳 등. 현재 청소년들은 시간이라는 틀 속에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맡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안전을 지키지 않는 이상에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우리는 고양시 21만 청소년들을 위하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모습을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고양시 청소년이 안전한 거리〉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청소년이 지키는 안전

학교 등하교를 하는 동안에도 청소년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면하기 위해 무단횡단 하는 학생들, 학교 입구가 좁아서 차들이 지나가는 곳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찔한 순간들을 일상에서 자주 겪다보니 어느 순간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일부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들이 대부분 학교 내부나 근처 문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학교 밖 울타리에 대한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학교 앞 정문처럼 근접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내가 아닌 교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학교에 큰 타격이 없다는 이유로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청소년들의 안전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 활동범위를 늘리고 자치적으로 상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지원을 활발히 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회나 일부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지킴이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 상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은 안전에 대한 보여주기식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 지킴이 활동에 봉사시간을 부과하

여 자발적인 참여를 받도록 합니다.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 지역은 선정하고, 2018년에 고양시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의 협의를 통한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하고 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2. 청소년들이 안전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셉테드 활성화를 통해 평소에 다니기 어둡고 무서웠던 구석진 골목에 조명 설치와 벽화 작업을 통해 음산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포토존과 산책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금연 사각지대 같은 곳에 "간접흡연 NO!"와 같은 그림을 통해 메시지 전달하고 아울러 안전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적 멘토링과 교육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청소년과 자율방범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하는 안전귀가 프로젝트

각 지역마다 지구대 및 파출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로는 범죄취약지역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등 범죄예방활동, 관내 중요 행사시 질서유지 및 경찰 업무보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소년들이 함께 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영위해 나갑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부분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순찰이 시행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고양시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시키고 이를 청소년 안전지킴이와 연계하여 순찰 경로에 의견을 내고 그것이 반영되어 더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기대효과

1. 학교의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유스존(YouthZone)으로 확대되어 청소년들이 관내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을 받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이후에도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매년 안전과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며 범죄율은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2. 청소년들이 다니기 어둡고 무서웠던 골목길이 사진을 찍고 싶은 장소와 산책하고 싶은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벽화나 그림에 메시지를 내포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열쇠로 작용할 것이고, 청소년이 포함된 시민들이 셉테드가 도입된 곳을 걸으면서 심리적인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이전에 비해 범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모님과 청소년을 연계하여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가정과 지역사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들이 건의한 순찰 경로를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기성세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도출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청소년에 의한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